



의정부주보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최창흡 베드로 (1786-1839)



서울의 중인(中人) 집안에서 태어난 최창흡은 어려서 교리를 배웠으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1801년 신유박해 때 형 최창현(崔昌顯)이 순교한 뒤로는 외교인과 다름없는 냉담한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서른 살쯤 손소벽(孫小碧)과 혼인한 후 다시 교리를 배웠고, 1821년 전국에 콜레라가 퍼졌을 때 아내와 함께 대세를 받은 다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갔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순교를 결심한 최창흡은 그해 6월 친정으로 피신해 온 딸 최영이(崔榮伊)의 가족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때, 사위 조신철(趙信喆)이 맡겨 둔 다수의 교회 서적과 성물이 발견되어 포청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형조에서도 여러 차례의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큰 고통을 참아 냈다. 결국 같은 해 12월 29일, 6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53세였다.

성화_민경애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주님 공현 대축일

소리 주보 ▶



입당송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 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시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시나이다. ◎

제2독서 에페 3,2.3ㄴ.5-6

복음 환호송 마태 2,2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방 예언자 발라암

유다 광야에서는 베두인 목동들이 키우는 나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베두인들은 이런 나귀를 ‘택시(?)’라고 권하며 호객 행위를 합니다. 다소곳이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나귀 택시들을 볼 때면, 주인에게 억울하게 맞고 하소연했던 ‘발라암의 나귀’(민수 22장)가 떠오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벌판에 다다르자, 모압 임금 발락은 이스라엘의 기세에 두려움을 느껴 그들을 저주하려고 발라암이라는 예언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발라암은 ‘발락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처음엔 거절하지만, 발락이 두둑한 복채를 제안하자 마음이 움직여 주님께 재차 여쭙어 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따라가도 좋다.’는 허락이 내립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주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막아섭니다. 나귀가 천사를 보고 길에서 비켜나자, 천사를 보지 못한 발라암은 그를 때립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니, 나귀는 영문도 모르고 때리는 발라암에게 하소연합니다. 이에 발라암은 칼만 있었어도 말대꾸하는 나귀를 죽였으리라고 위협하지만, 저주의 말로 한 백성을 해치기 위해 고용된 그가 언변으로 나귀조차 당해내지 못한 건 역설입니다. 나귀를 굴복시키는 데 ‘칼’을 필요로 했으니 말입니다. 발라암은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셨을 때 비로소 천사를 알아보고, 나귀 덕에 목숨을 구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이후 그는 발락을 만난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을 축복해줍니다.



유다 광야의 나귀



모압 벌판

성경에서는 발라암을 “점쟁이”(여호 13,22) 또는 ‘불의한 자’(2베드 2,15; 묵시 2,14 등)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는 발라암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긴 하였으나, 애초에 복채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였다는 점과 관계 있어 보입니다. 모압 임금에게 가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파격적인 대가를 제시받자 주님께 다시 여쭙어 봤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뜻을 바꾸어 발라암에게 가도 좋다고 허락하신 건 일견 의문거리지만, 그에 대한 해답은 2사무 22,27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비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하느님께서서는 허락은 하셨으나, 곧 천사를 보내어 발라암에게 호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라암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남깁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민수 24,17). 실제로 이후 동방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인식하게 되지요(마태 2,1-12). 민수기에서 발라암의 이야기를 길게 서술한 목적은, 이방 예언자조차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복종하였음을,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을 막을 자가 없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았듯이, 발라암도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예언자들에 앞서 구세주와 관련된 신탁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暗雲)들’ ⑦
- 새 매체(뉴미디어)를 통해 소통한다는 환상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과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지난주에는 회칙 「모든 형제들」이 지적한 형제애의 증진을 가로막는 뉴미디어의 두 가지 구체적 폐해 중 ‘파렴치한 사회적 침범’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폐해인 ‘지혜 없는 정보’(47-50항)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회칙은 우리가 참된 지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① 실제 세계와의 만남, ② 인격적 만남의 전형인 주의 깊은 경청과 환대의 능력, ③ 고요한 성찰의 시간, ④ 참을성 있게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먼저, “실재의 끝자락들조차도” 그 직접적인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신 매력적인 건 ‘좋아요’로, 혐오스러운 건 ‘싫어요’로 즉각 분리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이들은 ‘선택’하여 남겨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상황들은 ‘지우기’를 통해 삭제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 세계 내 “가상의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름으로써 실제 살아가는 세계에서 멀어집니다.

둘째,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는 탓에,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도 함부로 끼어들고, 하려

는 말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즉각적으로 반박하기 일쑤입니다.

셋째, 우리는 침묵하거나 주의 깊게 경청하는 대신, 디지털 세계에서 쉽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생활 양식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둘이 마주 앉아 답소를 나눌 때조차 계속해서 누군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생활 양식에서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좀처럼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격적인 대화나 여유 있는 대담 또는 열정적인 토론을 통해 진리를 ‘함께’ 추구하고 개인들과 전체 공동체의 ‘폭넓은’ 경험을 포용할 때, 비로소 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 세상의 재빠른 탐색과 입증되지 않는 데이터 모음은 ‘지혜’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쉽 없이 흘러가는 평면적이며 누적적인 정보의 홍수나 얇은 지식의 나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우리는 문제의 핵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인 지혜에 접근하기보다는 나열된 데이터 주변만을 맴돌게 됩니다. 그 결과, 진리와 지혜가 안내하는 참된 자유와 인터넷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은 쉽게 혼동돼 버리고 맙니다. 🌐

축복을 내리시는 성부와 천사들



한스 멤링, <노래하는 천사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들과 있는 성부>, 1483~94년, 목판에 유채, 금, 중앙:170x212cm, 양측:170x231cm, 안트워르펜 왕립미술관, 벨기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아름답고 깊은 영성의 걸작들을 소개해드릴 박혜원 소피아입니다. 이 지면의 성미술 작품들을 통해 여러분의 영성이 한층 더 깊어져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길 희망합니다.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번째 그림을 만나봅니다. 먼저 눈부신 황금색 배경이 시선을 사로잡는 이 그림은 <노래하는 천사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들과 있는 성부>로, 높이가 무려 170cm에 폭이 674cm에 이르는 수평으로 매우 긴 대작입니다.

서구에서 5~15세기에 걸친 중세는 하느님이 중심이 된 시대로, 중세인들은 신비롭고 고귀한 천상계를 표현하는 색이 황금색이라고 생각했지요.

여기 세상의 어둠을 거두어 낸 먹구름 사이로 천상의 빛으로 눈부신 황금빛 공간이 그 놀라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앙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관 쓴 성부께서 화려한 브로치로 여맨 붉은 망토를 두르고 손에는 우주를 나타내는 수정 구슬에 십자가가 달린 왕홀을 들고 정면을 향하고 계십니다. 여기 우주를 나타내는 지구본과 십자가는 성부의 신성하고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지요. 위엄과 동시에 한없이 인자한 모습의 성부는 신중하면서도 확고한 모습으로 온 인류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고, 그의 양편으로 노래 부르는 천사들이 3명씩, 양측 두 패널에는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천사가 현악과 금관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네요. 이 어여쁜 천사들이 빚어내는 천상의 하모니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하지요? 섬세하고 개성 넘치면서도 은은한 성스러움이

배어나오는 천사들의 모습 자체가 천상의 신비를 드러내며 증거하고 있네요.

본래 이 작품은 스페인 북부 산타마리아 레알 수도원 성당의 거대한 다폭제단화 중 상단부였다고 하니 제단화 전체가 얼마나 웅장하고 장관이었을지 상상만으로도 황홀합니다. 그리고 제단화 중앙에는 '성모승천'이 그려졌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 상단부 패널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부 하느님의 모습이 너무 젊은 게 좀 이상하지요?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부의 붉은 망토를 여미는 브로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박힌 세 개의 보석은 바로 '삼위일체'를 암시해줍니다.

양옆 패널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해 악기 연주에 집중하고 있네요. 이 놀라운 걸작을 그린 화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태생인 한스 멤링(Hans Memling, 1430/1440~1494)입니다. 멤링은 15세기 당시 북유럽의 대표적인 상업도시, 벨기에의 브뤼헤(Brugge)를 기점으로 활동했지요. 오늘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일대를 플랑드르(Flandre)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작품들은 매우 정교한 극사실적인 표현과 상징들을 통해 은근하게 메시지를 표현했지요. 하느님의 '삼위일체' 브로치처럼 말이예요. 지금 이 순간 황금빛 공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밝아오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모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



7(주일)	복음화사도회 신년하례미사 - 신앙교육원
8(월)~12(금)	군종교구 사제피정 지도

이번 주 1/7(주일)~13(토) : 루카 2,25-52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성경 읽기 이 구절을 한 주간 반복해서 읽고 쓰고 묵상합니다. 1/27(토) 한 달간 읽은 내용에 대한 해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구
소식**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2024 미사 안내

“Sleeping with Bread” and Mass (빵 미사) 일시 1/6부터 매주(토) 18시
 Family Mass with crying baby (가족 미사) 일시 1/7부터 매(주일) 11시
 문의 031-901-1460, 850-1456 청소년사목국

미사 안내 ▶



하느님의 종 황사영 알렉시오 시복을 위한 은혜의 밤

일시 1/13(토) 17시 장소 황사영순교순례지 묘역 (영성관)
 1부 - 한국순교 성인·복자 호칭기도(초봉현, 안수)
 2부 - 황사영과 오늘의 신앙
 3부 - 미사
 강의 및 미사 이한택 요셉 주교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의정부교구청 사제숙소 시메온의집 직원 모집

인원 여 〇 명 (60세 이하) 모집분야 미화 및 주방업무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자격증 사본 근무처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71 시메온의 집
 근무시간 주말 근무 포함 (주 20시간) 우편접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3층 관리국
 문의 031-850-1426 관리국

장례지도사(봉사자,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봉사자반(10주) 3/9~5/11 매주(토) 09시~18시
 자격증반(300시간) 3/9~10/26 매주(토) 09시~18시
 장소 신앙교육원, 의정부교구청 내 대회의실
 인원 봉사자반 50명, 자격증반 30명
 문의 031-874-6272, <http://cafe.daum.net/c-sjr>

미사 · 피정 ▶▶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엄마와 딸(미혼) 피정: 1/27(토)~28(주일)
영신수련 2박 3일 피정: 2/16(금)~18(주일)
세월의 지혜와 영성 피정(65세 이상): 4/24(수)~5/3(금)
품 그리기(자녀 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장소: 서울 구로구 오류동 (1,7호선 운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사: 1/9(화) 이창진 신부, 1/23(화) 김창숙 단장
문의: 010-5514-4077 회장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매달 첫토요 신심 피정 2/3(토) 및 매주 목요일 피정
강사: 이한택 주교
파티마 성모님 발현 기념 피정 (매월 13일)
1/13(토) 10시~14시 미사 (점심 제공)
문의: 031-952-6324 파티마 평화의 성당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피정

“주일은 거룩한 날, 귀한 날, 영적인 날이니,
거룩히 지낼지라.”
일시: 1/13(토) 14시~18시 / 장소: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지도: 정종득 신부 / 성가: 고영민
비용: 1만원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찬양과 치유 기도회
일시: 1/12(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문의: 010-2127-0032

성모술숯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 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날짜: 2/2(금)~4(주일), 3/8(금)~10(주일),
4/12(금)~14(주일) [2박 3일]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피정

일시: 1/14(둘째 주일) 09시(미사)~16:30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 (미아동 본원)
내용: 강의, 성체조배
문의: 010-9742-3842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16(금)~24(토), 3/16(토)~24(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13(토) 10시 풍동 성당
1/20(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삼성산 피정의 집 1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일시: 1/13(토) 12시~17:30 (미사 안수, 중식 무료)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2024 한마음 청소년 힐링 음악 피정

1차: 1/30(화)~31(수), 2차: 2/20(화)~21(수)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 회비: 10만원
접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1/20(토)~21(주일), 2/24(토)~25(주일)
3박4일: 1/11(목)~14(주일), 2/15(목)~18(주일)
8박9일: 1/29(월)~2/6(화), 3/14(목)~22(금)
40일: 4/11(목)~5/20(월)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교육 · 모집 ▶▶

파주 엑소더스 '에투알'(etoile, 별) 봉사자 모집

이주배경 자녀를 위한 청소년성장 프로그램
일시: 2월부터 매주(토) 10시~16시
내용: 학업 이외의 청소년 성장활동
(해외 봉사, 야외 체합, 악기, 댄스 등)
자격: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관심자
문의: 031-948-8105~6 파주엑소더스 (금,토 휴무)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홈코칭!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수업: 일대일 수업 (회화, 여행영어 등)
혜택: 3회 무료 수업 제공
문의: 053-593-1273 대구청소년수련원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주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대상: 20~30대 남녀 가톨릭 신자
오디션: 1/14(주일) 17시, 명동대성당
준비: 지원서 및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1곡)
문의: 카톡 오픈채팅방 LogosChoir

노들담 첫영성체 교재 연수

일시: 1/27(토) 09:30
장소: 의정부교구청 지하1층 대회의실
문의: 010-6300-6318 노들담 교리교재 연구소

가톨릭교리신학원 2024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1/16(화)까지, 자세한 내용 ci.catholic.ac.kr
교리학과 - 주간, 주5일 / 종교학과 - 야간, 주4일
2년 과정 -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 1년 과정, 주3일 (신청 자격 확인)
문의: 02-747-8501 가톨릭교리신학원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4년 하반기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2024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접수: 2/16(금)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교황청 승인) 신입생 모집

모집: 제1과정(예비과정: 철학/신학 62학점),
제2과정(석사과정)
각 장학금 수업료 50% 감면 혜택
접수: 1/26(금) 17시까지
문의: 02-2164-6521, cukgscl@catholic.ac.kr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젊은이 땅끝 기도모임

대상: 해외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부모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ZOOM) 특강

주제: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을 닮은 구체적인 방법
- 3H (Healthy / Happy / Holy) Family
일시: 1/12(금) 19:30~21:30 / 접수: 1/10(수)까지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문의: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소규모양로원) 우양의 집 어르신 모집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
주소: 파주시 하지석길 267-74
운영: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문의: 010-9271-4694

시스피나 시니어 여성 합창단원 모집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일시: 매주(수) 14시 / 장소: 시스피나(신촌)
문의: 010-9842-8818

가톨릭 시니어 합창단원 정기 모집

대상: 55세 이상 신자 누구나
접수: 1/31(수)까지
장소: 서강대 정문 연습실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음악원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영선반 직원 채용

부서: 고객센터영선반 영선반 (실내외 작업)
근무: 주5일 근무 / 주40시간 (08:30~17:30)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호평동 성당 사무장 모집

자격: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인 교우
업무: 사무행정, 회계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추천서 (서류 반환 불가)
접수: 1/21(주일)까지, 우편만 가능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73번길 27
호평동 성당 (우 12142) / 전화문의사절



가톨릭 여성 심리 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일시: 월~금 10시~16시
상담-문의: 02-990-9366

청소년 성소계발과 최양업 신부님 시복을 위한 독후감 공모전

대상: 청소년 및 일반 신자
분량: A4 2장 이상
접수: 3/17(주일)까지
시상: 청소년, 일반 각 장원(100만),
우수(50만), 장려(20만)
※ 자세한 내용은 한국평단협 www.clak.or.kr 참조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26(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4/1(월) 산티아고 도보순례 118km (12일)
4/17(수) 이탈리아 완전 일주 (11일)
5/20(월) 튀르키예(터키) 그리스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여행 619호
www.catholictravel.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3/1(금)~11(월) 스페인 남부, 파티마 (500만원)
3/7(목)~17(주일) 서부지중해 크루즈 (499만원)
3/11(월)~21(목) 동부유럽 성지순례 (480만원)
4/22(월) ~ 5/3(금) 발칸반도 성지순례 (51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된장(1kg) 2만원,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green1004.or.kr

2024년 이탈리아 순례 - 작은형제회

75차: 5/22(수)~6/3(월) [12박 13일]
77차: 10/25(금)~11/6(수) [12박 13일]
내용: 로마, 아시시 및 프란치스코 성지
문의: 010-9704-9495,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라파엘 해외 성지순례

4/5(금) 프랑스 성모성지순례 (529만원)
4/17(수) 발칸 메주고리에 (429만원)
4/22(월) 산티아고 순례길과 포르투갈 (449만원)
5/13(월) 스페인북부, 포르투갈 루르드 (46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20(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5만원)
3/14(목) 프랑스 성모성지 및 수도원 순례 (13일 560만원)
5/15(수)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14(주일) 14시~17시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23~39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노혜인 선교사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눈꽃산행: 1/19(금)~21(주일), 1/27(토)~29(월)
2/3(토)~5(월), 2/14(수)~16(금)
2/23(금)~25(주일), 2/27(화)~29(목)
자연순례: 3/1(금)~4(월), 3/8(금)~10(주일)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성베네딕도수도원 전례, 탐방 & 성지순례

날짜: 2/17(토)~19(월) 수도원, 대구
3/1(금)~4(월) 수도원, 부산, 마산
3/14(목)~17(주일) 전주, 광주
4/20(토)~24(수) 울릉도, 독도, 수도원
출발: 서울 명동 (대형 버스)
성지순례: 5/15(수)~28(화) 독일수도원, 바티칸,
이탈리아(수비아코)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제주 면형의 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한라산 눈꽃산행: 1/20(토)~22(월),
1/26(금)~28(주일), 2/2(금)~4(주일)
2/17(토)~19(월), 2/25(주일)~27(화)

자연순례: 3/10(주일)~12(화)

접수: 064-756-6009, 02-773-1463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의정부가르멜 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여성	010-8078-7016
	작은형제회	1/26(금)~28(주일)	안토니오 피정의 집	010-6608-3217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1/13(토) 14시	명동 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주님 세례 축일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축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1월 6일) 다음에 오는 주일에 지내는데, 주님 공현 대축일을 1월 2~8일 사이 주일에 지내고 그날이 1월 7일이나 8일일 경우에는, 다음날인 월요일에 지냅니다. 2024년 주님 세례 축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부터 교부들은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구원 역사의 중요한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세례 때, 하늘에서 들려온 성부의 음성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잉태 순간부터 충만하였던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예수님께서 ‘기름부음받은이’(메시아)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독서로 봉독되는 이사 42,1-4.6-7은 ‘주님의 종 첫째 노래’의 일부인데, ‘메시아의 도유와 파견’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도유와 파견에 관한 주제는, 주일일 경우 제2독서로 봉독되는 사도 10,34-38(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이날 감사송에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언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 세례 축일으로써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시작된 성탄 시기가 끝나고, 다음날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 축일에 이어지는 주간은 연중 제1주간이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신 일은 죄로 물든 인간과 맺은 유대 관계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는 장엄한 순간, 세례를 통해 당신을 낮추시는 겸손과 죄인을 향한 연민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연중 시기를 새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



행주성당



성모몽소승천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031-974-1728	사 무 실
031-972-8537	팩 스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토 요 일	17:00 토요일저녁주일미사
주 일	09:00
	11:00 교중미사
평 일	11:00 월,화,수,목,금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後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교우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홍유선(임마누엘) 신부-

본당공지

■ **홍유선(임마누엘) 신부님 5지구 사제연수 참석**
일 시: 1월 8일 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사제연수 기간동안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 (12월25일 ~12월31일)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7건	2,100,000원
주님 성탄 대축일		1,085,000원
구 유 예 물		1,247,000원
주 일 헌 금		836,000원

■ 감사헌금

김소연	2,000,000원	정유현	100,000원
익명	1,000,000원		

■ 감사 드립니다.

본당 홍유선(임마누엘) 신부님께서 본당 운영 기금으로 일백만 원을 봉헌하여 주셨습니다.

복음 말씀 -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 교무금 납부 및 책정

교무금은 성당의 운영 및 유지관리등을 위해 신자 각 세대별로 매월 일정액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2023년 올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교무금을 완납하지 못한 분들은 납부하여 주시고, 2024년도 교무금 책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중 미사 예물 봉헌

1월 7일	최성권(야고보), 김민숙(골롬바)
1월 14일	류병운(미카엘), 김인수(미카엘라)

■ 하느님의 집 2차 헌금

오늘은 교구내 성전 부지 마련을 위한 하느님의 집 2차 헌금이 있습니다.